

코카콜라 광주공장 조합원 체포에 반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코카콜라 광주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조합원을 경찰이 체포한 것을 두고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20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던 화물 노동자들이 문자 한 통으로 배차 정지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 이에 19일 항의 집회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폭력 연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갈등을 증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 경찰의 가격으로 무릎을 디친 조합원 1명이

노조 "경찰 과잉진압에 조합원 부상, 인권 유린"

경찰 "적법한 대응, 원칙대로 사법 처리할 계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사측의 노조 탄압 편들기이자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하기 위해 회사 앞에 차를 세우고 숙식하는 노동자들을 잡아 가둘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북부경찰서장은 즉각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뒤 조합원 2명이 배차 정지 통보를 받고

다며 지난 17일부터 공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하루 평균 600km(12시간 이상)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경비와 지입·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청은 코카콜라 광주공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 체증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합원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부터 오후 5시37분까지 코카콜라 공장

정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물품 승하차를 위해 회사를 오가는 차량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아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와 정확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지난 13일부터 사측이 고용한 대체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했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췄다.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금융사기 피해금 조직원 전달 60대 女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60·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원을 인출해 송금책에게 전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동구 모 은행에서 인출한 사기 피해금 1500만원을 송금책에게 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주겠다. 저리로 대출하려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조직원에 말에 속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는 "대출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고풍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환전 중 100달러 위조지폐 발견

영암군 한 은행에서 환전 과정에 위조된 100달러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영암군 모 은행에서 A(51)씨가 환전을 요청한 100달러 지폐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위조지폐가 진짜 화폐와 재질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지영업을 하고 있다. 금고에서 신분증을 찾는 과정에 100달러 지폐를 발견했다. 1~2년 전 가게를 찾은 외국인 손님 건네줬던 해당 지폐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공원 지나던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

경찰이 공원을 지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를 구속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57)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삼암동 난지천공원 입구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 시도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성이 저항하면서 A씨도 일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여성의 외침을 들은 행인과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고층건물서 '식칼-과도' 떨어져 경찰 수사

인천지역 고층건물에서 식칼과 과도가 인도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병원 인근 오피스텔 인도에 식칼과 과도, 가위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건물 위에서 흉기들이 떨어진 소리를 들은 가게 주인 A(35)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로 인적이 드물어 떨어진 흉기에 맞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흉기들이 떨어진 장소 바로 옆에 있던 오피스텔에서 누군가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지문감식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남동구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전기밥솥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가 파손됐다.

경찰은 당시 밥솥을 집어던진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사는 치매 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8일 새벽에는 인근 지역 한 고층 아파트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10여 차례나 지상으로 떨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뉴시스

광주교대 총장 임용 세 번째 무산 공백 장기화

광주교육대 총장 임용이 세 번째 무산되면서 2년 넘게 총장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20일 광주교육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광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 이동우 교수와 2순위 김인수 교수에 대해 임용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교대는 지난 3월 총장 선거를 통해 이 교수와 김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광주교대 총장은 교육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임명된다.

광주교대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1,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번까지 임용이 무산돼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총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광주교대는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 선거를 위탁해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세 번째 총장 임용이 무산돼 대학 구성원들도 적잖게 당혹스럽다"며 "내화는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보세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0일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한 커플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배움터 디자인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루나파크: 더 디자인 아일랜드'를 찾은 찾은 어린이들이 대형 보름달과 여러 마리의 토끼오르비제가 설치된 '문래빛촌'에서 소원을 빌고 있다.

노인 학대해도 경찰 조사는 3.4% 불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확인 됐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10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해자가 자식이라 노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년 동안 신고된 전체 건수 3만7223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건

은 총 1만2720건으로 34.2%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 학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처벌을 위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 건은 431건으로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자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학대를 가한 사람의 70%는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으로 조사

됐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게 된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이뤄진다.

노인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함에도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처지인 것도 사건이 조용히 묻히는 이유 중 하나다.

학대를 참지 못해 피해자 전용 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노인도 최근 3년간 163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사건을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